

여야, 4월국회 합의... 연금개혁·개헌특위 '빅딜설'

'박상옥 청문회' 이전 맞서

19일 野 의총 후 결론날듯

4월 임시국회가 내달 7일부터 5월6일까지 한 달 동안 개최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주례 회동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4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실시되는 4·29 재·보궐선거를 고려, 개회를 1주일 정도 늦춰졌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이 최대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5월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대한 노력하되 시한을 못 박지 말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국회 내에 '개헌 특위' 신설을 제안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개헌 특위의 이른바 '빅딜 설'도 제기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개헌 특위 구성에 적극적인데다 새누리당에서도 유연한 모습에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조해진 수석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래 여야가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한 시한은 5월2일이지만 주말이 겹쳐서 4월 30일을 1차 시한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늦어도) 5월6일에는 연금 개혁

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개헌 논의 자체는 열려 있지만 일방적으로 합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수석부대표는 "우리 당도 여당이 내놓은 법안 중 받기 어려운 게 있지만 국익을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한 부분이 많다"면서 "봄이 왔으니 정치나 경제에도 봄이 오도록 (여당에서) 물꼬를 터 달라"고 밝혔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를 통해 개최 여부를 결정한 뒤 여야가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반감이 만만치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개혁특별위(정개혁위) 위원 구성은 이

르면 17일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정개혁위에 들어가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8~9일 이틀 동안 실시된다. 13~16일에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까지 4개 분야에 걸쳐 여야 의원 12명씩이 나서 대정부질문을 한다.

4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4월 23일, 30일, 5월 6일 3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최대 이슈며 개헌특위 구성을 지렛대로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가 다시 타협과 소통의 정치를 구현할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 청문회

휴대전화 감청 허용 공방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업무능력, 역사인식 문제 등을 검증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며 휴대전화 감청 허용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간첩 검거와 사이버테러 위협 적발을 위해 감청을 허용토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통과를 요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의 권력 오·남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5·16 쿠데타(군사정변)에 대해 "그때 우리가 굉장히 북한보다 어렵지 않았느냐"며 "역사적 사건을 국가 안보에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점에서 보면 5·16은 국가 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5·16을 쿠데타로 생각하느냐"는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용어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눈누령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 등은 국정원이 수사 내용을 과장해 언론에 흘린 것이라는 이인규 전 대검 중장수사부장의 주장에 대해 "원장이 되면 (진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원내지도부 한자리에 새누리당 유승민(왼쪽)·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16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을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이종훈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박대통령 지지율 9주만에 40%대 회복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9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3월 둘째 주인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한 결과(95% 신뢰수준±2.0%),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2.8%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첫째 주 이후 처음이라고 리얼미터는 덧붙였다.

전주 대비 상승률은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5.5%p, 대구·경북 5.1%p, 광주·전라 4.7%p, 대전·충청·세종 3.8%p 등 순으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6.3%p, 30대 4.0%p, 40대 3.2%p, 50대 2.7%p 등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주한 미군대사 피습 사건을 둘러싼 증북 논란으로 보수층 결집이 이어지며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상승해 9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재보선 "1승도 못건질라" 초비상

광주 서울 등 3곳 후보 결정

野 우세지역 패배엔 충격 클 듯

4·29 재보궐 선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위기가 깊어지고 고조되고 있다.

16일 새정치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지난 14일 경선을 통해 인천 서·강화울을 제외한 3곳의 후보를 확정했지만, 정작 당원 투표율이 20~30%대에 그치는 등 지지층의 관심을 끄는 데는 실패했다. 경선 결과도 이변 없이 현역 지역위원장들이 모두 승리, 이렇다할 화제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1곳 이상 승리'를 목표로 잡은 것이 엄살만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선거 대상지역인 4곳 중 3곳이 앞선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어서 패배할 경우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4곳 중 승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곳은 야당의 심장부인 광주 서울과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후보로 나선 서울 관악을이다. 전통적으로 야당의 표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두 곳도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당내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광주 서울에는 무소속으로 나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다 '비(非) 새정치연합 연대'가 형성돼가는 분위기여서 치열한 접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내세운 새누리당이 '인물론'과 '지역발전론' 등으로 맞불을 놓을 태세에서 제1야당의 입지를 좁히고 있는 형국이다.

또 서울 관악을도 '고토회복'을 노리는 옛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 등으로 표가 분산될 전망이다. 당내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김희철 전 의원에 대한 지지표를 정 후보가 온전히

흡수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여서 형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성남 중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신상진 전 의원이 꾸준히 1위를 달리고 있고, 인천 서·강화울의 경우도 워낙 여당의 텃밭이어서 분위기는 더욱 좋지 않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권을 노리는 문재인 대표가 보궐선거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 지나치게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라 분석도 있다. 문 대표를 위한 '전략적 엄살'이라는 것이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런 악조건 속에도 경제 의제를 전면에 내세워 반전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후보별 맞춤형 정책 공약을 준비하는 등 정책으로 승부를 걸면서 '유능한 경제정당'의 모습을 부각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광주 서울 보선 후보

정승 前 식약처장 확정

새누리당은 오는 4월 29일 실시되는 광주 서울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후보로 공천하기로 16일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곧바로 공천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4·29 광주 서울 보궐선거는 새누리당 정승 전 처장,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전 광주시의원, 무소속 천정배 전 의원, 무소속 조남일 예비후보 등이 대결을 벌이게 됐다.

김무성 대표는 공천장을 수여한 뒤 "이번 선거에 안 나오면 아마 장관 1순위로 올라가게 돼었는데 저희들이 광주·전남에서 '제2의 이정현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차출했다"며 필승을 다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황주홍 "구제역 예방 3회위반엔 시설 폐쇄"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검사·주사·약물복용·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가축소유자에 대해 시장·군·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을 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다 보니 강제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아는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